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90304)

(가)

갑: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기 보존을 위해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선(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지각, 믿음, 기억, 쾌고 감수 능력 등을 지닌 삶의 주체가 갖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병: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다. 어떤 종(種)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범례>
 A: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B: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 기>

ㄱ. A: 쾌고 감수 능력이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ㄴ. B: 모든 유기체가 지닌 목적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ㄷ. C: 고등 능력을 가진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ㄹ.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90308)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되고, 세심하게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을: 원조의 의무는 원조 대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것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 ① 갑: 원조 대상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갑: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사회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③ 을: 원조 대상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원조가 수행되어야 한다.
 ④ 을: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의 감소 차원에서 원조가 필요하다.
 ⑤ 갑, 을: 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다.

3.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90309)

(가)

갑: 소유 자격의 여부는 소유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소유 자격이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권리가 부여된다.
 을: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손해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병: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나)

- ① A: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화 분배는 정의로운가?
 ② B: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지는가?
 ③ B: 빈민의 처지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④ C: 정의의 원칙들 간에 서열을 두는 것이 필요한가?
 ⑤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야 정의로운 사회인가?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90313)

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으로 양심적인 행위이고,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 ① 갑: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 판단이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다.
 ② 갑: 개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다.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의도하지 않는다.
 ④ 을: 부정의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때도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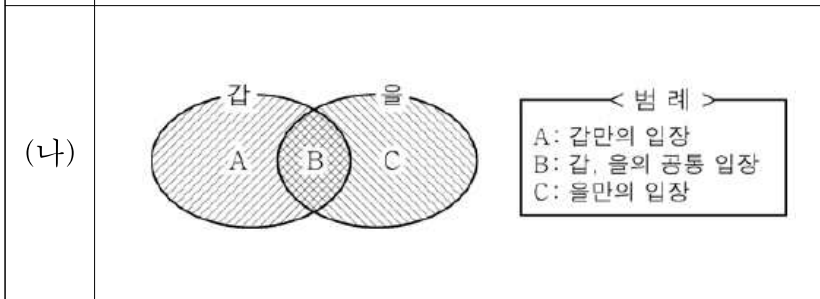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90316)

지나친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제시하는 권력 간의 균형은 잠정적 평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한편 도덕주의에서 강조하는 이익과 권리의 합리적 조정은 역사와 전통으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불의나 은밀한 강제력을 조정하기 어렵게 한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에 부합되는 강제력을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을 밝혀 줌으로써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

- ①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으로 포함할 수 없다.
- ③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양심이 사회 구조의 정의로움을 결정한다.
- ④ 집단 간의 힘이 균형적인 상태에 도달하면 영구 평화가 달성된다.
- ⑤ 합리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조정으로만 불의를 극복할 수 있다.

6.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윤사 190310)

(가) 갑: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 계약을 정치체에 전 구성원을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 일반 의지에 의해 지휘되는 이 권력을 주권이라고 부른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통일된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된다. 이 인격체가 주권자이며 절대 권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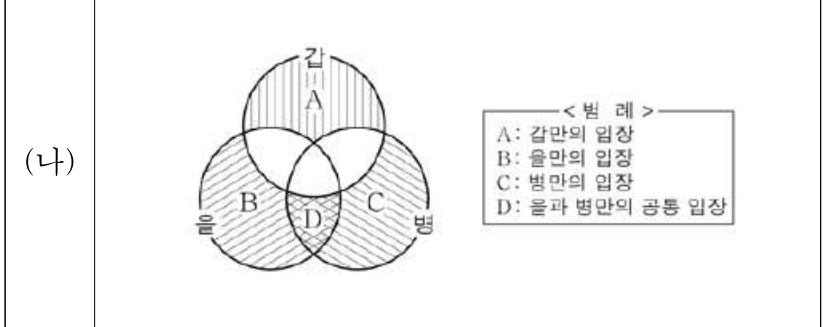
<보 기>

ㄱ. A: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다.
 ㄴ. B: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다.
 ㄷ. C: 정치권력이 없어도 자연법이 있으면 평화가 보장된다.
 ㄹ. C: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윤사 180314)

(가) 갑: 정의의 원칙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을: 정의의 원칙은 시민들이 동등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 정의의 원칙은 과정적 원칙이다. 취득, 이전, 시정의 원칙은 과정을 명시할 뿐 별도의 정형적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보 기>

ㄱ. A: 독점만 사라지면 다원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가 된다.
 ㄴ. B: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ㄷ. C: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부정의하다.
 ㄹ. D: 업적을 기준으로 재화를 분배해야 정의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80312)

(가)	<p>갑: 평등의 원리는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바는 없다.</p> <p>을: 무생물일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이 지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반되며, 도덕성을 촉진하는 자연적 감정을 약화시킨다.</p> <p>병: 생명체를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p>
(나)	

<보 기>

ㄱ. A: 인간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ㄴ. B: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C: 모든 생명체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ㄹ. D: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잔혹하게 다루는 행위는 잘못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81003)

갑: 인간은 본래 자유로우며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 세워졌다. 통치권은 오직 공공선을 목적으로 위탁된 것이며 자유인은 자신의 동의를 통해서만 복종의 의무를 진다.

을: 인간은 모두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사회 구조와 제도가 정의롭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불복종은 오직 시민들 간의 자발적인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침해될 때 행사될 수 있다.

<보 기>

ㄱ. 갑: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정부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ㄴ. 을: 정치 체제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표가 아니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 유지와 강화에 기여한다.
 ㄹ. 갑, 을: 복종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E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181004)

(가)	<p>갑: 오직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이익 관심을 지니며 이들은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p> <p>을: 모든 생명은 자기 보존과 자체적 좋음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병: 인류는 동료 구성원들과 전체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동식물뿐만 아니라 대지를 포함한다.</p>
(나)	

- ① A: 인간이 인간 이외의 종(種)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② B: 유정(有情)적 존재를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③ C: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는 인간과 독립된 가치를 갖는가?
 ④ D: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는 생명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가?
 ⑤ E: 인간은 동식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1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81014)

(가)	<p>갑: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 줄 때 타고난 자질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p> <p>을: 차등의 원칙은 진행 중인 과정이 어떤 결과에 도달해야 할지를 규정한다. 분배의 결과를 규제하는 원칙은 취득·이전의 원칙에 위배된다.</p>
(나)	

<보 기>

ㄱ. A: 재화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ㄴ. B: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ㄷ. B: 정당한 소유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ㄹ. C: 재분배를 강요하는 차등의 원칙은 소유권을 침해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윤사 170315)

갑: 인간은 본성상 공동체에 살도록 되어 있으며, 몇 개의 촌락이 크고 완성된 단일 공동체로 결성될 때 자연스럽게 국가가 나타난다.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이며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자연권을 향유하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를 공동체에 위임함으로써 국가를 세운다. 국가는 오직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유지된다.

- ① 갑은 국민이 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사회는 자연의 산물이고 국가는 인공물이라고 본다.
- ③ 을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수립된다고 본다.
- ④ 을은 복종할 국가를 결정할 권리가 개인에게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구성원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70304)

갑: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다.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처벌은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할 때 인정된다.
을: 사법적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범죄자는 오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권을 타인이나 국가에 위임하지 않는다. 범죄 억제의 효과는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 ① 갑: 형벌의 해악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
- ② 을: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병: 범죄 억제력을 고려하여 형벌의 등급을 정해야 한다.
- ④ 갑, 병: 유용성을 고려하여 사형 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한다.
- ⑤ 을, 병: 사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70314)

(가)	<p>갑: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사회적 기본 가치가 분배될 때 그 분배는 정의롭다. 을: 재화의 분배는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 기여할 때 정의롭다. 병: 개인은 자신의 타고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보유 상태는 정의롭다.</p>
(나)	

<보 기>

ㄱ. A: 최소 수혜자를 위해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를 차등 분배해야 한다.
ㄴ. B: 재화 분배의 공정성 여부는 절차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ㄷ. C: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 재분배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ㄹ. D: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5. 사회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윤사 171011)

갑: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 다른 가치를 얻고자 하면 그것은 권력을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각 분배 영역의 고유한 분배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을: 어느 누구도 사막에 있는 유일한 우물을 사유화하여 그가 원하는 물값을 요구할 수 없다. 개인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어떤 것에 노동을 가하여 가치 있게 만든 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

- ① 갑: 어떤 사회적 가치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면 안 된다.
- ② 갑: 정의의 각 영역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을: 과거의 불의로 형성된 소유 상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 ④ 을: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얻게 된 소유 권리는 정당하다.
- ⑤ 갑, 을: 사회적 약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90714)

(가)	<p>갑: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는 인간 자신의 의무에 반한다.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둔화되어 타 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소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p> <p>을: 인간은 자신을 공격하는 동물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므로 이러한 행동은 정당방위처럼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p> <p>병: 생명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대지 윤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대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p>
(나)	

<보 기>

ㄱ. A: 모든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ㄴ. B: 개체의 번영보다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우선이다.
 ㄷ. C: 도덕적 존중의 대상을 인간 개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ㄹ. D: 인간이 비이성적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90412)

<p>갑: 현명한 사람은 정의를 운명에 맡기려 하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불의한 정부에 복종하느니 불복종의 처벌을 택하는 편이 모든 면에서 옳는 것이 적다.</p> <p>을: 호전적인 사람은 법질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대를 나타 내며 전투적 행위를 추구한다. 시민 불복종은 전투적 행위와는 구분되며,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p>

- ① 갑: 시민은 국가가 정한 모든 법을 지키면서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
 ② 갑: 개인의 양심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을: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④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므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기존의 정치 체제를 변혁하려는 행위이다.

1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90415)

(가)	<p>갑: 식물은 동물을 위해 생겨났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 야생 동물의 대부분은 식량을 위해서 혹은 그 밖의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존재한다.</p> <p>을: 대지 윤리는 호모 사피엔스를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료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p> <p>병: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갖는다고 할 때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돌맹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을 갖지 않는다.</p>
(나)	

<보 기>

ㄱ. A: 인간은 동식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ㄴ. B: 유정(有情)적 존재의 특징에 따라 배려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ㄷ. C: 대지의 온전함을 위해 인간이 져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가?
 ㄹ. D: 인간과 포유류의 복리(福利)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0707)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며,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소가 갖는 힘은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동 체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즉시 불복종하는 행위이다.
 ③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④ 시민 불복종은 불공정한 법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⑤ 시민 불복종 자체는 위법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이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0405)

갑: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을: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의 감수성은 강력하지만 일시적 충동보다는 반복된 인상에 의해 훨씬 쉽게, 영속적으로 자극받기 때문이다. 종신 노역형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보 기>

ㄱ. 갑: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ㄴ. 을: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ㄷ. 갑, 을: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언제나 공적 정의에 부합된다.
 ㄹ. 갑, 을: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0307)

갑: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사회 계약의 본질과 상반된다. 사회에 끼친 손해를 노동으로 속죄하는 것을 오래 보여주는 형벌이 사형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책이다.

을: 살인범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는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로 해체될 때도 감옥에 있는 살인범은 처형되어야 한다.

- ① 갑: 종신형은 사형보다 형벌의 실효성이 적고 비인간적이다.
- ② 갑: 살인범에게는 생명 박탈의 처벌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 ③ 을: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이다.
- ④ 을: 평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처벌의 양과 질을 결정해야 한다.
- ⑤ 갑, 을: 처벌의 최종 목적을 범죄 예방과 교화에 두어야 한다.

2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윤사 190411)

갑: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전제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나아가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정치적 삶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을: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시민이 한 영역 내지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① 갑: 모든 시민이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가치를 분배할 때에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영역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정의의 원칙들을 단일화해야 한다.
- ⑤ 갑, 을: 소수가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2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이 (나)의 사상가에게 제기할 옳은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윤사 190719)

(가) 갑: 어떤 분배가 정의로운 조건은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이다. 분배 정의란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을: 모든 사회적 재화나 재화의 집합은 각기 그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 작동하는 분배 영역이 있다. 경제적 재화인 돈은 성직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신앙심도 시장에서 어떤 이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나)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사회·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합니다. 제 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측면에 적용됩니다. 제 2원칙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데 기여합니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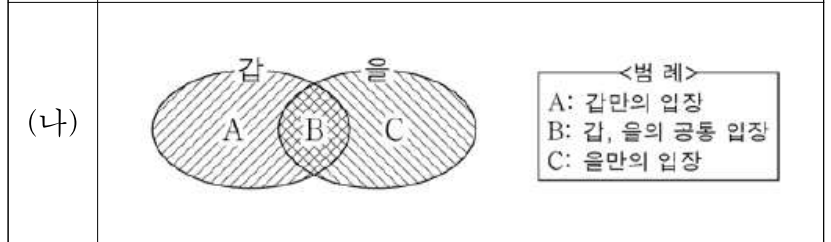
ㄱ. 갑: 사회적 재화를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간과한다.
 ㄴ. 갑: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세는 재산권의 침해임을 간과한다.
 ㄷ. 갑: 단일한 분배 원리가 영역별 자율성을 훼손함을 간과한다.
 ㄹ. 갑, 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0419)

(가) 갑: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을: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입장을 선정한다.



<보 기>

ㄱ. A: 재산을 소유할 권리의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ㄴ. B: 분배의 공정함은 결과보다는 절차의 공정함에 기인한다.
 ㄷ. C: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ㄹ. C: 천부적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5. 사회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윤사 190314)

갑: 천부적 재능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 사회적 행운이나 천부적 재능을 소득과 부의 분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을: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원리는 과정적인 분배 원리와 달리 정형적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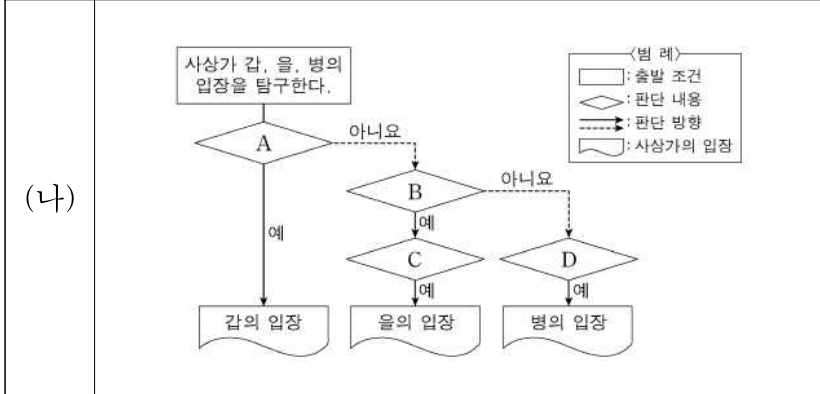
<보 기>

ㄱ. 갑: 모든 가치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만 한다.
 ㄴ. 을: 정형적 분배 원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ㄷ. 을: 취득과 이전 과정의 정당함이 소유 상태를 정당화한다.
 ㄹ. 갑, 을: 최대 행복의 원리를 분배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80712)

(가)
 갑: 분배는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 마땅한 상이 주어질 때 정의롭다.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가질 때, 분쟁과 불평이 생겨난다.
 을: 분배는 합리적 개인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할 때 정의롭다.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은 부의 획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병: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확립될 때 정의롭다. 정형화된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 기>

ㄱ. A: 산술적 비례에 따를 때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가?
 ㄴ. B: 절차의 공정성으로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ㄷ. C: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는가?
 ㄹ. D: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7.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1012)

갑: 강제력은 불의를 지속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통해서 정의 실현할 수 없다. 정의 실현은 합리성을 계발하고 도덕적 선의지를 확충하는 방법들 통해서만 가능하다.
 을: 도덕적 요인들은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제력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 ① 갑: 개인의 도덕적 양심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없다.
- ② 갑: 합리적 이성이 강제력과 결합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 ③ 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비합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 ④ 을: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 ⑤ 갑, 을: 개인과 집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2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0713)

갑: 선의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자체로 선택한다. 지성, 용기, 결단성과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의지가 선택하지 못하면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을: 선의지만으로는 사회적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다. 그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된다.

- ① 갑은 좋은 결과를 의도한 행위만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 ② 을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동정심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집단의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이타성을 사회가 지향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2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0317)

갑: 도덕적으로 중요하 일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을: 우리는 국제 관계가 질서 정연한 국가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조는 고통받는 국가들이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제반 여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 ① 갑은 빈곤국의 구성원은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가난한 국가들이 모두 원조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원조를 모든 국가의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차등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평등 실현이라고 본다.

3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0720)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 한 사회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을: 원조의 목적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어지는 행복감은 원조의 중요한 동기이다. 원조의 실천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① 갑: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 ② 갑: 원조는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해야 한다.
- ③ 을: 개인에게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④ 을: 원조 대상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빈곤국을 제외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을 평준화해야 한다.

3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90716)

갑: 정부의 원조 확대는 원조의 총량을 증가시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개인도 절대 빈곤에 처한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을: 정부가 국민이 굶주리도록 방치하는 상황은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은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는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한 동기로 행해져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목적을 원조 대상국의 제도 개선으로 한정해야 한다.
- ③ 을: 원조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 ④ 을: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빈곤국의 정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 여부는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70708)

갑: 사회의 필요와 양심의 명령 사이에는 융화되기가 어려운 갈등이 있다.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을: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고 그 후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 내가 마땅히 소유할 단 하나의 의무는, 어느 때이건 양심에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사회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이다.

ㄴ. 갑: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의 불균등으로 부정의가 지속된다.

ㄷ. 을: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종 근거는 개인의 양심이다.

ㄹ. 을: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저항은 필수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1	②	17	③
2	③	18	③
3	④	19	②
4	①	20	④
5	①	21	②
6	①	22	⑤
7	③	23	③
8	③	24	⑤
9	③	25	⑤
10	⑤	26	③
11	②	27	③
12	③	28	②
13	⑤	29	②
14	③	30	①
15	⑤	31	④
16	⑤	32	④